통권 118 호

후원회소식

발행일 2001. 8. 13
발행인 권오헌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비전향 장기수 송환을 통한 민족의 화해와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

지난 8월 9일 오후 2시 성공회 대성당 프란시스홀에서는 토론회를 열어 6·15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6·15공동선언 이행의 첫 조치인 비전향 장기수 송환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인도주의 실현과정을 되돌아보고, 지속적인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디딤돌이 될 무조건적인 2차 비전향 장기수 송환을 촉구하였다.

• 목 • 차 •

우리의 주장 권오헌 회장님 • 2/ 출소장기수 김태수선생님을 찾아서 이창희 수습간사 • 4/ 곽인석 회원을 찾아서 이승미 편집위원 • 7 / 산행기 김교영 선생님 • 10/ 정순덕선생님 간병기 김현애 회원 • 12/ 감옥에서 온 편지 이른바 '인양사랑청년회' 사건 구속자 안신정님 • 13/ 감옥에 보내는 편지 김호 편집위원 • 13/감옥에 보내는 시 유병문 편집위원 • 14/ 특집 한총련 탄압에 반대한다 • 15/ 광고 • 18/ 이런 일이 있었어요 • 19/ 회비납부 • 24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Tel.** 02-765-5282 **Fax.** 745-5604 **회원모임방** Tel.02-888-4470 FAX. 02-888-4470

8 · 15 양심수 사면을 거듭 촉구한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8.15광복절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조국광복과 민족해방을 맞았던 그날의 감격 때문만은 아니었다. 외세와 분단에서 자주와 통일을 이루어 내야 하는 민족적 염원의 다짐 때문만도 아니었다. 일제 식민지배에서 자유와 해방을 찾았던 그 벅찬 순간처럼 부당하게 갇혀 있는 아들 · 딸, 남편과 형제자매, 그리고 아버지가 그 고통의 족쇄에서 풀려나 가족품으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절실함 때문이기도 했다. 바로 양심수가족들의 마음이었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사정당국에서 말해오고 있는 밀레니엄 사면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다. 1999년 년말에 양심수 단 9명만을 형집행정지로 석방한데 대하여 항의하는 양심수 가족들에게 당국에서는 바로 밀레니엄 사면을 말하고 대폭사면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2000년 3.1절 사면은 없었다. "밀레니엄 사면은 선거를 앞둔 정책사면이란 정치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룰 수 밖에 없다"고 집권당 관계자는 말하고 있었다. 지난해 8.15 광복절사면에서도 2/3이상 복역한 양심수 20명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고 9명이 감형되었을 뿐이었다. 70고령에 고혈압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범민련 고문 라창순씨나 중증간경화를 앓고 있는 영남위사건 박경순씨 등이 제외되고 석방대상자로 언론에 자주 올랐던 정명기, 강위원 등 한총련 4,5기 의장과 많은 한총련 학생들이 빠져 있었다. 그리고 끝내 지난해 연말과 올해 3.1절에도 양심수 사면은 없었다.

지난 7.28일 0시 5년 징역형 만기를 다 살고 경주교도소를 나서는 젊은이가 있었다. 바로 그 시간까지 전국교도소에 갇혀있는 양심수 가운데 가장 긴 징역을 살고 만기 출소하는 97년 전남대총학생회장이었고 한총련 5기 의장이었던 강위원 학생이었다. 파렴치 흉악 사범이 아니었음은 물론이고 실수로 교통사고를 낸 과실범도 아니었다.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다해 왔던 학생양심수를 사면조치가 아니라 만기출소하는 이 젊은이를 맞는 마음은 참으로 착찹하기만 했다. 사면때마다 번번히 제외되어 만기를 채우고서야 출소한 학생은 이사람 뿐이 아니었다. 지난 7월 13일엔 홍성교도소에서 97년 조선대 총학생회장으로 남총련 의장으로 일했던 정의찬 학생이 역시 5년형 만기출소 했고, 오는 8월 3일엔 96년 전남대총학생회장이었던 정명기 4기 한총련의장이 또한 5년형 만기출소 하게 된다. 무슨 죄를 얼마나 크게 지었기에 일반형사피의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 잔형면제와 복권 등 사면조치를 받지 못하고 5년 징역을 다 채워야 했던가. 그 많은 권력형 부정비리 사범이나 국정농단 범죄자 그리고 수백 · 수천억 나랏돈을 가로챘던 자들까지 모두 사면복권되어 언제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가 싶게 큰소리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한총련 소속 학생들에 대한 이 같은 가혹한 처분은 착찹하다 못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내란과 군사반란과 양민학살,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북풍공작 그리고 수천억 도둑질보다도 더욱 가혹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한총련 학생들은 과연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대학생이 된 죄였다. 그것도 한총련 소속이었고 그 간부였으며, 분단된 땅에 살면서 자주와 통일을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구조조정으로 쫓겨나고 늘어난 농가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의 아픔을 함께하려한 죄였다. 이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 · 고등학생처럼 그리고 모든 시민 · 사회단체처럼 민주적 방법에 의해 자주적 학생조직을 갖게 되었고, 학원자주화운동, 조국통일운동, 민중들의 생존권 문제 등 사회정의 실천운동을 해 왔을 뿐이었다. 그것도 6 · 15 남북공동선언정신에 맞게 강령을 개정하는 등 유연성 보이며 -경찰간부들도 인정했듯이- 평화적이고 공개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탄압하는 공안당국은 아직도 시대 역행적인 냉전, 공안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탄압도구인 국가보안법은 이제 그 개폐논의마저 정치권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6 · 15 공동선언시대에서도 공안당국과 국가보안법은

붙박이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조직한 반국가단체"로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 농민 · 청년학생 · 지식인 등 모든계층이 연합하여… 미국을 축출하고 미제국주의에 예속된 현정권을 타도하여 민중민주정권을 수립해야 한다고 선전 · 선동한다"고 50년 동안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 고무 선전하거나 - 그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고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면, 기타 표현물을 제작, 구입,복사, 운반, 배포, 판매, 취득한 혐의"를 씌우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북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북이 이남정부를 타도하고 민중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선전 · 선동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법정에서 진술한다. 또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 고무 선전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한총련을 조직한게 아니라고 항변한다. 학생들 뿐아니라 공안당국자 말고는 그 어느 누구도 억지 주장을 믿지 않고 있다. 심지어 자유총연맹이나 상이군경 대표들까지도 금강산 민족통일 대토론회에서 한총련 학생들과 함께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아닌 화해와 협력 대상인 동포임을 확인하며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검찰과 경찰당국은 9기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귀하께서 기일내 출석하여 한총련을 탈퇴하고 이후 활동하지 않겠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면 사법처리 않을 "이라고 하여 거부하면 이적단체구성 · 가입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

양심수 가족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는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양심수 사면과 관련하여 속시원한 소식이 없어 답답하다. 민주당은 30일 인권위원장 공식 브리핑에서 국가보안법과 집시법관련 양심수 158명에 대한 사면복권과 한총련 지도부 등 학생운동관련 정치수배자 148명을 수배해제 하는 등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당의 이름으로 청와대와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법무부의 건의에 따라 올해 광복절 특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고 보도되었다. '광복절 사면없음' 이 청와대의 공식입장인지는(대변인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판단되지 않지만 민정수석이 말했다는 내용은 보통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있다. 당대표가 정치적 판단으로 비록 실정법상 구속되었다해도 역사와 정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건의한것에 대해 양심수를 잡아 드리는 법무부의 말만 받아들여 특사를 않겠다고 한 말은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개선을 말해왔던 현정권의 주장과도 맞지 않으며 아직도 냉전과 공안시각에서 양심수를 보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었다. 양심수는 그들 개인이나 소수 이익이 아니라 공공선을 위해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다 구속된 사람들이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들이나 부당하게 쫓기고 있는 정치수배자들은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며 초국적 자본이 강요하는 구조조정 · 정리해고반대와 공기업 해외매각을 반대하고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해 싸우다 구속된 사람들이다. 이들 양심수는 부정비리, 국정농단, 북풍공작 등 실제로 민주주의 기본질서와 사회안전과 사회정의를 해친 범죄자와는 엄격히 다른 사람들이다.

아직도 감옥엔 8년형을 받고 있는 하영옥씨 등 민혁당 관련자와 민주주의 민족통일부산연합 의장 이성우씨 등 방북관련 인사, 이용득 금융노련위원장 등 노조원들, 김상화 학생 등 한총련 불탈퇴 혐의 학생들 모두 179명의 양심수가 갇혀있다. 양심수는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고 사면 · 복권되어야 한다. 그리고 94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8년의 정치수배를 당하고 있는 진재영씨와 유영업, 이동진 학생등 148명의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 학생들이 쫓기고 있다. 한총련 합법화와 함께 이들 수배학생들이 반드시 수배해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양심수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면 · 복권을 거듭 촉구한다.

"평생을 노동자로 살아"

이창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수습간사

평생을 오로지 노동자로 살아오신 장기수 선생님이 계신다. 그 분은 바로 노동으로 단련된 다부진 몸매를 지니신 김태수 선생님이시다. 우리는 이 선생님을 통해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이 가슴아프게 이야기하는 "뼈저린 가난을 딛고자 험난한 노동으로 살아온 민중"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김태수 선생님의 인생사는 소박하게 노동하며 민중이 걸어 온 한국현대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김태수 선생님은 1927년 12월 15일 경북 선산군 옥선면 구본동에서 아버님 김기원님과 어머님 김영상님 사이에서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나셨다. 빈농에서 태어나신 선생님은 11세에 아버님을 일찍 여의시고, 그 후 행상을 하시던 어머님을 돕고자 소학교를 2학년으로 중퇴하면서 형님을 따라 어린 시절부터 공사장에 나가 일을 하셨다.

그 어린 나이에 집을 나서서 중앙선 철도공사 함바집에서 일하기도 하고, 철도 터널공사에서 막노동을 하기도하고, 문경 왕릉탄광에서 허드렛일을 하기도 하셨다. 일자리를 찾아가다 배가 고파서 산에 있는 감을 너무 많이 주워 먹어 변비에 걸려 죽다 살아난 적도 계셨다. 공사가 끝나면 다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걸어서 문경새재를 넘어 월악산으로, 제천 등으로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중앙선 철도공사장에서 일하고 12살의 나이에 다시 집으로 갔다.

하지만, 집이 여전히 가난하여 다시 경북 의성군 다인면 광덕리 일본인 소유의 광산터널공사장에 가서 맨발에 피가 나도록 일을 하셨다. 야박한 형님을 두어서 일을 해도 형님이 가로채어 직접 임금을 받지 못하고, 몸이 아파도 형이 시키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셨다.

그렇게 일하고 다시 집으로, 그리고 다시 강원도 영월군 산동 텅스텐광산으로, 제련소 건설 일용 품팔이로 일하고, 또 다시 집으로… 이렇게 선생님은 어린 몸에 노동의 땀방울을 처절하게 새겨 나가셨다.

집에 땅 한 자락도 없어 농사도 짓지 못하고 일자리라도 얻어야 먹고 사는 노동자의 처지이기에 선생님은 그 생활을 계속 반복하셨다. 14세에는 함경남도 풍산군 수력댐 공사장으로 멀리 일을 나가셨다. 댐공사가 끝나고 연동 흑연 노천광산에서 일하고, 금동 철광에서 일하셨다.

이 때, 선생님은 김일성부대의 활약상을 들으셨다. 혹시 그 곳에 들어가면 생활이 나아지지 않겠는가하고 생각도 해보았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동참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하신다.

"말도 다르고, 습관도 다른 일본인들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주인행세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일본인들의 권유에 일할 수 밖에 없으셨다. 일본인의 권유로 경북 의성에서 일하다 집으로 가고, 다시 의성군 달미면 수리조합 현장건설 현장에서 1년 넘게 일하셨다. 그때부터는 선생님은 형님에게서 벗어나 혼자서 일을 다녔다고 하신다.

수리조합건설이 끝난 뒤 잠시 집에 들른 뒤, 선생님은 경기도 부평 일본군 군사기지공사장에서 일을 하셨다. 이때 처음으로 현장에서 일본인 십장이 구타하는 것에 반발해 일을 나가지 않았다고 하신다. 일본인으로 구

성된 상이군경회가 몰려와서 더 심하게 매질을 하여도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며 개인적인 파업을 하셨다. 한많은 노동생활도 서러운데, 부당한 구타까지 당하고보니 선생님은 도저히 한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으셨던 것이다.

마침내, 한달 뒤 해방을 맞았다. 그러나, 해방도 먹고 사는 문제에 항상 고달픈 품팔이 노동자에게는 큰 처지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해방후 잠시 빈농으로 고향에 계시다가 1947년 지속되는 가난을 딛고자 친구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 밥을 얻어 먹으며 일자리를 찾아 떠났셨다. 황간 산촌에 금광 일을 하기도 하고 농가에서 밥을 얻어먹으며 밥값을 하기위해 일을 하다가, 일을 잘 해서 품값을 얻기도 하셨다. 그 품값으로 평택가는 차표를 끊고, 그 곳에서 철도다리 유실공사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번 돈을 집에 부치면 여전히 형님이 다 가져갔다고 한다.

선생님은 계속 용인 산판에서, 수원 송탄 수리조합에서 일을 하다가 마침내 일자리가 많다던 서울에 들어가셨다. 함께 일하는 노동자 중에는 이북이 살기좋다며 찾아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신다. 선생님은 어디 사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친척 생질을 찾아 서울역 영천교 근처를 헤매다가 운좋게 고향 친구를 만나서 친척 생질을 찾고, 그 생질의 소개로 식당에서 식당 노동자로 3년간 일을 하셨다.

1950년 전쟁이 터지자, 선생님은 인민군이 쳐들어와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하여 프랑스대사관 옆 방공호에 숨었는데, 한참 있다 나와보니 오히려 인민군 탱크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고 환호하며 다니는 것을 보면서, '해방' 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신다.

그리고, 군좌익사범으로 연루되어 형무소에 있다가 풀려 나온 고향친구와 함께 의용군에 입대하셨다. 친구는 공병대로 가고, 선생님은 보병부대에 배치되었다.

105부대 16대대 1중대 1소대 1분대가 선생님께서 기억하시는 소속부대이다. 이 부대는 전라남도 고흥군 풍남에서 해안감시임무를 하였다. 그리고, 부대는 미군의 인천상륙 이후 화순을 거쳐 광주로 가서 기차를 타고 북상하다가 미군에게 쫓겨서 장성에 기차를 숨기고 산으로 올라갔다가 한다.

그 후, 부대는 더 이상 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전라북도 내장산에서 회문산으로 옮겨 1951년에 접어들면서 유격대로 전환하여 다시 남원군으로 파견되어서 본격적인 빨치산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후 '무장정치공작대' 로 명칭을 전환하고 지리산에 모여 6개도의 빨치산이 회합하여 조직체를 건설하는 등 체계적으로 활동하면서 선생님은 '남원군 유격대' 에 소속되어 남원군의 군, 면당 사업을 잘 되게 도와주며 지냈다고 하신다. 이때 지금 현재 광주에게 계신 장기수 선생님이신 류락진 선생님도 함께 활동하였다고 한다.

당시 류락진 선생님을 사형언도받게 내부고발한 변절자는 빨치산 활동당시 구천면 운봉면에서 국방군가족인 사람들을 마구 죽이려 하였는데 선생님께서 "국방군가족이라고 함부로 죽이지 말라"라고 비판하여 못하게 했다고 하신다. 선생님은 그렇게 함부로 활동한 사람들이 결국 먼저 투항하여 동지들을 팔아먹는 변절자가 되었다고 분노하셨다.

1951년 12월 국방군의 총공세로 유격대는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국 몇 달간의 파상공세속에 선생님은 지리산 반야봉 정찰에 나갔다가 비행기까지 동원된 군·경 합동공격으로 함양쪽으로 피신하다가 봉쇄되어 결국 연행되셨다.

이 때가 1952년 2월 18일이다. 그후 선생님은 남원서로 이송되고, 많은 사람이 재판도 없이 처형되었지만, 선생님은 운이 좋으셨던지 1952년 6월에 대구형무소로 이송되어 특별조치령위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무기형을 받고, 4.19 의거때 15년 감형을 받아 1967년 8월 7일 만기출소하셨다.

이 때까지는 역사적으로 심한 전향공작은 없었지만, 그래도 검찰에서 지속적인 전향강요를 하였다고 하신다. 선생님은 이러한 전향에 대해 "나는 민족을 위해 당당히 활동한 것이다."라고 하며 응하지 않고 자신의 신

념을 지켰다. 결국 선생님은 비전향 장기수로 15년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감옥을 나오신다.

선생님은 출소후 고향으로 돌아가 생질 집에서 임시 거주하며 다시 옛날처럼 도로공사판 등에서 건설 일용노동자로 일하셨다. 그리고 1971년 44세에 중매로 김순남여사님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셨다. 그리고, 2남1녀를 낳으시고 노년에는 아파트 청소를 하시며 생활을 영위하셨다고 한다.

이런 평범한 생활 탓인지 다행히도 선생님은 1975년 제정된 사회안전법(과거 이미 형을 치룬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을 재범위험이 있다해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만든 반인권악법)상의 '보안감호처분'을 면하기게 되었다. 그 당시 미리 석방되어서 사회에서 만난 감옥생활동료인 변형만 선생님과 한춘익 선생님은 북에서 내려왔다는 이유로, 가정을 꾸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청주보호감호소로 끌려가셨고, 이후 강제전향공작에서 변형만선생님은 살인폭력고문에 돌아가셨다.

하지만 안타까움도 있다. 이러한 조용한 생활은 선생님께서 그토록 그리던 북녘으로 가실 기회를 만들어 주지 못했다. 한춘익 선생님은 전향공작을 모두 초인적으로 이기시고 출소하셔서 작년에 자신이 그리던 북녘으로 돌아가셨지만. 일상에 묻혀 지내시던 선생님께서는 90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출소하셨던 비전향장기수선생님들과의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송환과 관련된 정보를 얻지 못하여 지난 해 비전향장기수 송환신청을 하시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 주책임은 공안당국에 있다. 사회안전법제정 당시에는 어디든 찾아와 대상을 심사하던 공안당국이 6·15공동선언이행의 첫 조치인 비전향장기수송환에 있어서는 모든 비전향장기수선생님들에게 의사타진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비전향장기수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요구에 지금까지 응하고 있지 않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

선생님의 이름은 지금 2차 장기수송환대상자명단에 올라 있다. 정부는 인도주의차원에서 선생님을 무조건 송환해야 할 것이다.

선생님을 인터뷰한 시간은 새벽 6시였다.

5기 한총련 의장 강위원의 출소환영식장에서 선생님을 만나서 대구로 새벽에 올라와 취재를 한 것이다. 74세의 몸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노동으로 단련한 건강함으로 취재하는 필자보다 힘차고 생생하게 대화를 나누셨다.

젊은 후학에게 무엇을 바라느냐는 질문에 "많은 것을 배운 젊은이들이 나보다 잘 할텐데… 별로 할 말이 없다. 잘 해달라."라는 겸허한 대답을 하셨다. 필자는 젊은이의 한 사람으로 선생님의 겸손에 고개가 숙연해지고,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선생님께서는 "이 혼란한 사회에서 무엇을 바라는 것이 공염불이다"라고 하시며 특히, "인간생명경시풍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것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 그리고 조국통일이 되어 민족의 자주가 이루어져야 하며, 민중이 주인되는 권력이 서야 한다.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평생을 노동자로 살아오신 당신께서는 "이 땅 노동자들의 보수가 좋은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형편없다. 이러한 것이 모두 미국의 경제침략으로 인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동자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이번 취재를 통해 필자는 평생 노동으로 단련된 '철인 노동자' 김태수 선생님을 뵙고 귀한 말씀을 듣는 행운을 지니게 되었다.

후원회원이 언제든 대동단결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이승미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양심수 후원회 회원이라면 살아오면서 운동적 삶의 중심부 혹은 주변부에 최소한 한번쯤은 머물렀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 가운데는 자기 자리에서 그 삶을 계속 이어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소중한 기억으로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민가협 장터에 함께한 곽인석 회원(오른쪽 끝)

또한 거기엔 좀더 일찍부터 운동적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회한을 안고 살아가는 분도 있으니, 바로 곽인석 회원님이다. 그런 점만으로도 나는 이 회원님에게 처음부터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이 분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충남 홍성에서 1녀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난 곽인석님은 올해로 마흔넷이 되었다. 중2 때 공무원이신 아버님을 따라 가족이 모두 서울로 올라오셨고 현재는 할머님, 부모님과 함께 경기도 부평에서 살고 계시는 미혼의 회원님이다.

평소 곽인석님의 말쑥한 모습은 학창시절의 모범생을 연상케 했지만 살아오신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의외의 놀라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글쎄, 사춘기 시절의 방랑이었다고 해야 하나… 고등학교 1학년 가을에 학교를 그만두었어. 이듬해 4월에 퇴학 처리되었고. 그만둔 후부터 무전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주로 산을 많이 다녔지. 정말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

곽인석님을 견디기 힘들게 했던 건 통행금지가 있다는 것, 머리를 짧게 해야한다는 것 등 주로 70년대 중반 유신정권 통치의 부산물들이었다.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에서 일정 부분 벗어날 수 있었던 게 그렇게 좋았다고 하신다.

"79년 4월 군대에 끌려가기 직전까지 5~6년간을 거의 계속 돌아다녔어. 그때 나는 조국의 산천경개를 두루 볼 수 있었지. 중간에 부모님의 염려가 크셔서 대입 검정고시를 치뤘고 대학시험도 보긴 했었어. 78년이 되자 군대 신체검사가 날라오더군. 그걸 피해 제주도로 갔지. 그 이듬해, 학생신분에서는 군대 안가도 된다는 말에 제주대학에 입학을 했어.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내가 평생을 잊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좋았었지. 게다가 그곳엔 통행금지가 없더라구…"

강제 입대하게된 군대는 짐작과는 달리 의외로 제5공수특전여단, 즉 공수부대에 배치되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곽인석님에게 대단한 속박으로 다가온 군대생활이 이어졌다. 70년대 말~80년대 초의 역사적 격변기를 그렇게 보냈던 것이다.

"부마항쟁 때는 진주 경상대에 있었고 10·26사태, 12·12사태를 지나 80년 5월엔 고려대에 있었어. 8월까지 고려대에 있으면서 짐을 세 번이나 쌌다가 풀었지. 광주로의 이동 준비가 아니었을까 싶어."

불행 중 다행이었을까. 당시 1, 5공수특전여단은 끝까지 서울을 지키는 것으로 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이 지금껏 얼마나 큰 아픔의 기억으로 남아있을지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을 것 같다.

82년 1월 제대한 곽인석님은 부모님의 간곡한 바램으로 3월에 연세대 법대에 입학한다. 제대하기 전인 81년 하반기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었다고 한다.

"전두환정권 시절의 대학분위기는 내가 정말 군에서 제대를 한 건지 아닌지 구분이 안될 정도였어. 학교 안은 전경들과 최루탄이 늘 난무했지. 집회에 참가하기도

하곤 했었지만 결국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어. 86년 봄에 졸업을 했지만 당일 졸업식장엔 도저히 못 가겠더군. 다른 사람들 생각이 자꾸 나서…"

그 후 1년 정도 '유한킴벌리'라는 회사를 다녔지만 이게 내 길이 아니다 싶어 이내 그만 두었다 한다. 그러던 차에 성래운 교수님의 영향을 받아 고시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해직되셨다가 내가 4학년 때 복직되신 교수님이지. 법조인이 되어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하나의 길이겠다 싶었어."

그러나 그 길 역시 곽인석님이 갈 길은 아마도 아니었던가 보다. 1년 반 가량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지만 실패했다고 한다.

이북사회에 대한 곽인석님의 생각과 관심은 그 출발점부터 약간은 남다른 것 같다. 이는 무전여행 다니던 시절부터 수년간 보아온 너무나도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대하면서, 갈라진 나머지 조국 땅에 대한 그리움이 이미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역사, 세계사적 측면에서도 내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 대해 자꾸 생각해보게 되었지. 이북사회에 대한 관심도 자연히 갖게 되었고. 막연하게나마 이북의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 그들을 만나보고픈 마음이 간절했어."

그 막연하던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게 된 계기가 90년도에 만들어졌다. 아는 선배와 둘이서 중국 북경에 '세우물산'이라는 스키장갑 공장을 세운 것이다.

"목적은 이북의 나진선봉지구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어. 이를 위해 북경에 교두보를 만든 거였지. 진행과정에 있던 92년도에 다행히 한·중 수교도 맺어졌었고. 중국엔 선배가 가족과 함께 가 있었고 나는 서울 코엑스 무역센터에 남아 근무를 했었지. 북경엔 두 차례 가봤었고."

하지만 이 길 역시 만만찮은 것이었나 보다. 93년 초까지 운영을 했었지만 안타깝게도 실패로 돌아갔던 것이다. 실패한 것에 많이 낙담하여 그 후 상당 기간 동안 적극적인 생활을 못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주위의 권유로 95년부터 '공무원수험학원'의 국사담당 강사로 일을 시작해 지금까지 지속해오고 계신다.

곽인석님을 비로소 운동적 삶의 길로 나서게 해준 계기는 장기수선생님들과의 만남에서였다. 월간「말」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처음 뵈었고, 99년 4월초 말지 주최의 '통일강좌'를 통해 만들어진 장기수후원회에서 '갈현동 만남의 집' 후원을 시작하신 것이다.

"당시 그곳엔 다섯 분의 장기수선생님이 기거하고 계셨는데, 이 분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운동적 삶을 구체적으로 결심하게 되었어. 구경만 하고 있던 나의 발을 마침내 떼기 시작한 것이고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지."

이 지점에서 난 곽인석님이 가진 선생님들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선생님들과의 만남 그 자체가 마흔의 나이를 넘어 맞이한 삶의 큰 변화이자 분기점인 듯 싶기에…

"크게 보자면 그 분들의 인간성과 사상·신념에 감동을 받았어. 처음엔 오랜 감옥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 사람들에게 적대적, 공격적이실 줄 알았는데 뵙고 보니 그건 나의 선입견일 뿐이더군. 너무나 인자하셨고 마치 도를 닦으신 것 마냥 올곧으신 품성과 교양이 고귀하게 느껴졌어. 사람들에게 폐 안 끼치려 애쓰시고 늘 몸을 정갈하게 가지셨지. 누구 앞에서나 당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조금만 돈이 모여도 다른 동지들을 도와주시는 모습… 이 모든 것에서 나는 감동을 받았고 배우고자 애쓰지 않을 수 없었어."

또한 사상과 신념을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 지켜내신 모습에서는 경애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신다. 조국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당신 자신의 행복과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지켜낸 신념, 그런 신념을 가지신 것 자체가 놀라움이고 큰 감동이었다고 하신다.

"특히 우용각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 그 분이 해안에서 체포되신 날이 내가 태어나기 바로 한 달 전이었지. 내가 태어나 살아온 42년여 동안을 선생님은 꼬박 감옥에 계셨었다는 사실 앞에서 난 만감이 교차했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추스르게 되었었어."

짐작컨대, 선생님들께서 혹 지금까지도 곽인석님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시다면 그건 아마도 결혼에 관한 것일 것이리라.

"나는 북녘 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 꼭 가보고 싶고. 선생님들께서 송환되어 가시기 전에 결혼하라는 말

씀을 많이 하셨었지. 그때 난 결혼을 한다면 북에 가서 선생님들 앞에서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서 부탁까지 드렸었어. 나름의 진심이 담긴 말이었는데 당시 선생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

양심수후원회의 회원이 되신 건 99년 민가협 여름수련회 직후이다. 당시 선생님들을 통해 좋은 인상을 받았던 이정태 회원님의 권유로 가입했다고 하신다.

현재 곽인석님은 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부터는 최근 후원회 안에 꾸려진 '기획모임'에 회원관리담당 주체로 참여하기 시작하셨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대적으로 운동세력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 줄어들면서 목표점이 불분명해지고 신념과 목표를 결합하는 것이 좀 어색해진 게 현실인 것 같아. 운동세력들이 느슨해지고 분열되는 모습도 보이지. 양심수후원회가 언제든 유사시에 대동 단결할 수 있는 준비된 형태의 모임, 단체가 되어야 할 것 같아. 이를 위해선 회원들의 잠재된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공통성을 찾아내고 모임을 통해 끌어내야 하겠지."

지방에 있는 후원회 모임도 활성화되어 지역별 산행이나 전체 행사 등에 지속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것도 회원관리에서의 목표가 되겠다고 하신다. 또한 다른 후원단체들과 유대관계를 맺어 공동 주최의 행사를 만들어내는 등의 연대성도 발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신다.

"회원들의 연령별 특성과 정서에 맞게 후원회 사업을 만들어내고 역할 부여 및 분담을 해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곽인석님은 자신이 담당하게 된 일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여기서 나는 이전에 다른 자리에서 잠깐 하셨던 말이 생각났다. 현재 운동대열에서 40~50대 연령층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운동 연령층이 너무 나눠져 있어. 허리 부분의 공백 즉, 사오십 대가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말이지. 대학 시절 운동했던 동기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연로하신 선생님들의 뒤를 이어 지도적 역할을 준비해야할 사람들일 텐데. 노령의 선생님들이 아직도 손자 손녀 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시니 얼마나 기막힌 일인지…"

70-80년대 운동하던 사람들, 4·19와 5·18세대들이 해야할 일이 너무 많은데 보이질 않으니 당혹스럽다고도 하신다. 이젠 경제적으로도 도움 줄 여건이 될테고 모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하시면서, 그들이 다시 자신을 추슬러서 일을 할 수 있다면 특히 '후원회' 같은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하신다.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중간 중간 곽인석님은 진작부터 치열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과도 같은 말을 반복하셨다.

"진작에 어떤 계기가 있었더라면 더 일찍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을텐데… 수업시간에 통일을 얘기하고 일제잔재 청산을 얘기하면서도 나와서 실천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에서 오는 죄스러움을 오래도록 씻기 어려울 것 같아."

이 지점에서 나는 왠지 그 대답까지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언제가 행복하시냐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보았다.

"의식 속에만 있던 통일운동이 이제 현실화된 게 너무 좋아. 나의 지나간 40년의 삶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겠지. 모임에서 사람들과 식사를 함께 할 때도 좋고, 행사 참석한 후 저녁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도 큰 행복이고… 특히 선생님들과의 만남은 꿈 같은 시간들이야."

곽인석님에겐 늘 마음 한켠에 무거움으로 자리잡고 있는 게 있다. 바로 장남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데서 오는 죄송스러움이라고 하신다.

"연로하신 어머님이 더 연로하신 할머님을 지금껏 모시느라 애쓰시고 있고, 아버님도 이젠 노령이시니 내가 이 분들을 평소 많이 도와드려야 하는데…"

가족 모두 기독교 신자이시고 곽인석님도 모태신앙을 가진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다. 이런 신앙심 역시 그간의 삶에서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본다.

'인생에서는 늦었다고 생각됐을 때가 가장 이른 때'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던 것 같다. 곽인석 회원님이 언제까지나 우리들 곁에 든든한 동지로 남아 계셔주길 소망하며, 늘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린다.

"자! 떠나자 내일을 위해"'

김교영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원, 장기수 선생님

칠월의 마지막 휴일, 어쩐지 새벽부터 하늘은 낮아 보였다.

한다면 한다는 사람들, 마음을 세우면 눈비와 혹한을 가리지 않는 전천후 역군들 앞에 찌프린 날씨쯤 아랑곳 있으랴. 오전10시 집결장소에 모습을 드러낸 20여 회원들.

오늘따라 유난히 반갑다. 언제나 숨결로 달리는 범민련 후원회 회원들과의 합동산행이다. 연일 퍼붓는 장대비라도 이 뜻있는 결행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보았다.

출발은 좀 늦었다. 그래도 대오의 선두와 후미를 조화롭게 인솔하는 권오헌 회장님따라 도봉산 발치의 금록사를 지나 녹야원 부근에서 은석암으로 달린 다락원 능선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 이때부터 예상했던 빗발은 굵어지고 안개구름은 일행의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다.

오를수록 능선길은 험하고, 세찬 바람소리와 바위에 거칠게 부딪히는 골물소리를 헤쳐 오른다. 마치 자연속에 자신을 심은 지구의 오지탐험대 같다. 빗속에 풍덩 싱그런 자연을 마시며 한층높은 인간승리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감으로 무장한 대오답게 행사의 역할 분담과 운영에서의 모범성과 자율성은 우리 후원회가 자랑하는 도덕성이라 말할 수 있다. 이창희 간사를 비롯한 이정태, 신현익, 송창학, 이득행 등 밝게 웃는 순진한 성품과 언제 어디서나 솔선하며 시작과 마감을 빈틈없이 헌신하는 봉사활동에 이번 산행을 통해 또한번 큰 박수를 보낸다.

이래서 우리에겐 무한한 가능성과 꿈이 자라서 저 높은 양심의 등불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모두는 허약한 한몸을 돌보지 않고 병상에서 털고 일어선 권회장님의 탁월한 지도력과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확고한 신념의 덕분으로 여겨진다.

내 조국을 무한히 사랑하는 사람들. 양심의 등불을 켜들고 적은 것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린 모임. 조국의 자주통일과 인권쟁취 투쟁에서 더욱 결속된 우리 후원회는 다양한 연령층과 폭넓은 계층이 순수한 사랑으로 존중하고 나눔이 있는 정서적 유대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듯 선한 사람들이 하는 일에 날씨도 무심하지 않은 듯 줄기차게 쏟아붓던 빗줄기가 멈추자 운무도 말끔히 거쳐 조아리던 연봉들에 다정스럽게 우리 앞에 다가섰다. 낮 12시 30분엔 햇살도 눈부셨다. 다만 자연의 조화에 놀랠 따름이다.

우리가 모여선 여기 넓적 바위에 점심보따리를 풀어놓았다. 요즘 장마철에도 입맛 돋우는 반찬이 있었다. 7월의 보양음식들. 생오이, 풋고추, 양파에 더덕무침과 멸치조림, 족발과 배추 겉저리면 그만이다. 골물소리 힘찬 소리에 매미의 성급한 화음속에 막걸리 한사발의 제격은 무릉도원이 따로없다.

웃은 흠뻑 젖어도 붉으레한 얼굴엔 웃음꽃들이 마냥 피어오른다.

이창희 간사의 사회로 회원각자의 자기소개가 있은

다음, 기념촬영도 몇 캇트 눌렀다. 마지막으로 범민련 후원회 강병식 사무국장의 2001 민족통일대축전과 관련된 공지사항이 시달되는 순간 소나기의 기습을 받는다.

그때가 오후 1시, 변덕스런 기상변화는 더 이상 정상도전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잠시동안 무언의 대기시간이 흘렀다. 지그시 눈을 감으면 긴 장마를 극복하던 젊은 날이 떠오른다.

아득히 50년 억수같은 빗속을 강행군은 밤낮이 없었다. 온몸은 빗물과 땀에 젖어 며칠 허기진 뱃살 움켜쥐고 총상 환자를 업고 혹은 들것에 들고 길없는 지리산 깊은 골을 힘겹게 오르다가 예고없는 조우전에 또 동지를 잃어야 했던 그 시절.

지리산의 장마는 한 달째 계속되고, 물난리는 지친 사람의 상처가 갈수록 커져가는 산간 주변의 화전민들이 가엽던 그 시절이 주마등같이 되살아 난다.

이윽고 회장님의 하산명령이 하달된다. 의욕들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엇갈림 없는 한점에 모두의 걸음은 힘이 붙은 것이다.

드디어 하산 완료다.

이제 남은 일은 뒤풀이다. 거기에 '전주맛고을' 이 있었다.

저녁시간이라 여기저기 여흥소리가 들리고 장대빗속 삼겹살과 곱창굽는 냄새가 진동하는 음식골목 축배를 시작으로 하나되는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박수에 박수가 겹쳐 요란은 가득했다.

주인 아줌마의 노래솜씨가 이끄는 춤과 노래의 한마당은 보기드문 일품이었고 그칠줄 모르는 장기자랑은 폭소를 자아냈다. 그렇다. 노래와 웃음은 더 건강하고 더 젊어지는 수단이기에 실컷 먹고 놀고 실컷 웃었던 뒤풀이였다. 끝으로 손에 손을 잡고 마음과 마음을 부둥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을 몇 번이고 소리 높게 불렀다.

이제 우리의 산행을 정리해본다.

연일 퍼붓는 장마속 무사고 산행은 다행한 일이다. 소중한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우리 모두의 승리라 하겠다. 우리는 산행을 통해 얻은 것이 많다. 그것은 곧 보람으로 이어진다.

우선, 산을 닮아 산이 되고자 하는데 있다. 자연을 배워 심오한 진리를 터득하고 온갖 생명의 몸짓을 배우며 참는 방법을 심는데 있다.

다음으로 산행은 건강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럼으로 건강은 공통의 희망이고 건강한 곳에 굳은 신념이 깃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산행을 통해 더불어사는 공동체의식을 배운다.

많은 사람을 알고 벗을 알고 신의와 화합을 통해 하나되는 길을 찾는데 있다. 교제의 폭을 넓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성숙된 인간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

산행에서 아쉬운 이면을 들추면 출발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것과 악천후엔 참가인원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하겠다. 특히 여성회원들의 적극 참여가 바람직하며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각 시민단체들의 합동산행도 검토할 만하다. 노총각과 노처녀가 많은 모임이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하지만 후진을 아끼고 건전하게 이끄는 우리 후원회의 미래는 더없이 밝다.

"자! 떠나자 내일을 위해"

보다 높은 성과를 다짐하면서 귀가길에 오른다.

오늘의 추억이 길게 남으리라 믿는 사람들이여! 최고보다 최선을, 난 사람보다 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우연히 시작된 간병활동은 필연적 만남들을 선사해주었다

김현애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원, 매오로시 팀

우연히 시작된 간병활동은 필연적 만남들을 선사해주었다.

故 최남규 선생님, 류한욱 선생님, 그리고 정순덕 선생님.

모르면 용감하다고, 이론보다는 실천이라고 스스로 방어막을 치고 시작한 이 일로 인해 나 자신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둔감해져있던 역사의식이 되살아나고, 내면의 혼란들이 하나씩 치유되고 있기에 이 글을 간병기라 함은 주객이 전도된 모순적 글 제목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래도 두리 · 마토(둘째주 일요일과 마지막주 토요일의 줄임말)의 날에 정순덕 선생님을 문병가니 형식적 제목으로서의 의미 정도만 부여하자. 인간이 시대상황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각기 사고방식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동일한 시대의 물적 토대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선택은 온전히 그 개인의 몫이고, 그 선택은 완전한 자기결단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선택한 고난의 길은 선택당한 고난의 길보다 도덕적 수위에 있어서나 인내의 정도에 있어서나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있음을 선생님들의 모습속에서 실존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인간의 한계를 넘는 죽음의 고문, 인간정신을 서서히 피폐시키는 장기간의 수형생활. 그 속에서도 어떻게 굴절하거나 훼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순결하고 깊이 있는 영혼으로 살아나는지, 일천한 나의 경험으로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이다.

투쟁으로 일관된 삶의 결과로 허약해진 육신과 장애를 가지게 된 정순덕 선생님!

여러 사람에게 폐를 끼친다고 말씀하실 때, 난 분노의 마음이 마음속 밑바닥에서 꿈틀댄다. 당신 존재가 얼마나 소중함을, 그리고 살아계신다는 것 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한 것들을 당당하게 느끼게 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왜곡된 현실이 증오스럽다.

쓸모있음이란 말처럼 천박한 자본주의적 색채를 함축한 용어가 또 있을까.

모든 것을 필요 · 쓸모라는 잣대로 들이대며 제멋대로 재단해버리는 비인간적 가치관이 팽배해있는 이 사회에서 정순덕 선생님께서 받으실 마음의 상처는 헤아릴 수 없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못해 타락해가는 21세기의 현 시점에서 선생님의 존재는 사회의 균형추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반세기가 넘도록 잘리워진 국토, 그 분단으로 인해 분열된 곳곳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메워줄 중요한 정신적 어른들이 아니신가.

지배층은 있되, 지도층은 부재하는 슬픈 우리 역사속에서 선생님들은 우리의 희망이다.

분단된 조국에서의 선생님들의 위상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한 인간이 자기완성을 추구해가는데 선생님들만큼 자기완결성을 지니신 분이 계실까!

선생님들의 지난하고도 치열했던 고결한 역사가 잊혀져 사라질 지 아니면 꿈틀대며 살아있는 역사로 숨쉬게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들의 몫임을 되새기며, 통일조국의 그날까지 애오라지 선생님들의 건강을 거듭 기원한다.

감옥에서 온 편지

다음달 19일이 만기날입니다

안신정님은 자신이 몸담았던 안양사랑 청년회 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까닭에 구속되어 청주여교도소에서 2년여의 수형생활을 하고 이번 8월 19일에 만기출소합니다.)

권오헌 의장님

장마 철이라 그런지 그닥 덥지는 않습니다.

이 곳은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 서울,경기 쪽은 집중호우로 사람까지 상했다니 마음이 좋지 못합니다. 가뜩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서민들이 물피해로 또 상처입었으니 말입니다. 휴일동안 못보았던 화단의 풀과 해바라기는 훌쩍 커있었습니다. 한 두주전만 해도 '요만하 게 언제 커서 꽃필까?' 했던 해바라기가 이젠 올려봐야 합니다. 정말 여름은 풍성한 계절입니다.

제가 뿌려 놓은 참외 시도 실잎이 나오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불안과 체념이 뒤섞인 감정으로 수박,참외,토마토를 화분에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려고 애썼는데 지금은 녀석들의 모습을 보며 얼른 세월이 지나가길 바라니…

이제 조금식 자라는 참외가 꽃피는 것도 보지 못하겠죠. 이 곳에서 보낼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가요. 머리 속에는 여러가지 '놀러다닐' 계획만 가득합니다. 한 두주 정도는 여기저기 인사다니고 여행도 다녀올 생각입니다. 또 다른 시작을 다짐하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하거든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동이 트자마자 부지런한 까치가 선잠을 깨웠습니다. 저는 몇마디 짜증을 부리며 다시 이불 속으로 기어들었죠. 하지만 아침마다- 아름답지는 않지만- 새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깰 수 있다는 것은 작은 행복입니다.

저 다음달 19일이 만기날입니다. 지금쯤 저의 출소로 하여 국가보안법이 위기감에 떨고 있지 않을까 하는 주제넘은 상상도 해봅니다. 생활의 경험이 빈약한 제게 이번 징역살이는 제법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혁명의 대학을 졸업하며 점수를 매겨보면 B플러스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얼마나 더 실천하여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겠지요.

다음달, 8월 23일 목요일에는 민가협 목요집회때 인사드릴 수 있겠네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멋진8월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함께 보냅니다.

2001년 7월 16일

안양사랑 청년회 안신정 드림

감옥에서 온 편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호님은 작년 8월에 3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만기출소하고, 지금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원 및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더운 나날들입니다. 시원한 수박 한조각이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지 벌써 일년이 지나가는 지금 감옥에 있는 양심수에게 편지를 써야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저 또한 안신정님처럼 감옥에서 나와 제일하고싶었던 것이 여행을 떠나는 것이였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떠나지 못 하고 있답니다. 일상생활에 쫓겨 살면서 여유를 갖지 못 한 탓이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여행을 가고 싶었다는 마음마저 없어져 버리더군요. (저처럼 되지 말고 꼭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그래도 저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에 힘든지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남들을 기억하고 보듬어주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기억하지도 기억되지도 못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예전 어떤 선배가 그러더군요. 우리는 고통을 선택할 여유라도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운명처럼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행복한 것이라고…

어찌 보면 우리가 선택한 길이였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우리가 선택한 길이였기에 우리는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시간이였습니다. 이제 님도 얼마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수많은 민중의 삶과 직면해 살아갈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더욱 힘든 삶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기를 다 채우고 나오는 분에게 제가 너무 겁을 주었나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인권대통령인양 착각하고 있는 위선적인 김대중정권의 한복판에서 만기를 다 채우고 나오는 안신정님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힘차게 감옥문을 박차고 나오실시요. 그리고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힘차게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오는 날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8월 10일

김호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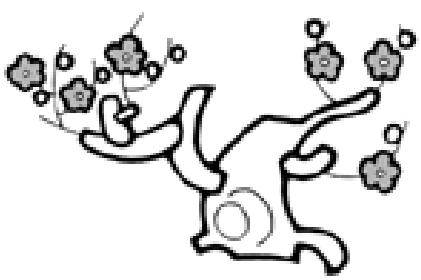
우리에게 남은 이 마지막 분단지대
- 옥중의 황선에게

유병문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민족21' 기자

조선옷이 멋나던 처녀
선, 너는
동그마니 웃은 조선 미인이었어
그런 네게 수정을 채우고 수의를 입히다니
이러고도 이 나라가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아무나 못 가던 시절 금단의 땅 북녘에
딸이 되어
민족의 딸이 되어
덥썩 겨레의 손목을 붙잡고
덩실덩실 통일춤 추었다고
너를 가두더니

이건 또 무어란 말이냐
겨레를 위해 옥담도 마다 않고
청춘을 바친 너 같은 민족의 딸, 아들이 없고서
6 · 15는 오지 않았을텐데
도데체 이게 무어란 말이냐



얼어붙은 분단의 겨울
통일의 봄을 부르기 위해
씨앗 하나되고자 했던 너,
너 있어 6 · 15 봄이 왔는데
꽃다발을 줘야할 너에게
훈장을 줘도 모자랄 너에게
수정이라니 감옥이라니
… …
6 · 15가 갇혔어
통일에 족쇄가 채워졌어

그러나,
그러나 선!
갇히지 말아
묶이지 말아

네가 선 그 자리
그늘지고 외진 옥담 안이지만
네가 처음 분단의 언 땅
사선을 넘어가 통일의 봄을 불렀듯
오늘 그 곳에서 꽃이 되어야해
통일의 꽃, 화해의 꽃이

우리에게 남은 이 마지막 분단지대에서
너의 향기 가득 차게

근거 없는 법 적용 남발 중단하고 9기 한총련 대의원들의 활동 자유 보장하라!

- 9기 한총련 대의원 수배조치 반대와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

새 세기 첫 광복절을 눈앞에 둔 지금, 우리는 지난해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의 감격을 되새기며 조국통일의 열기로 한반도를 뜨겁게 달굴 '격동의 8월'을 설레임 속에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온 겨레가 '화해와 단합, 통일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땅의 대학생들만은 '한총련 이적규정'이라는 구시대적 조항에 발목 잡혀 여전히 '수난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수 차례 대통령 및 검찰, 경찰 면담요청과 기자회견 등에서 한총련 이적규정의 부당성과 대학생들에 대한 수배 해제를 간곡히 호소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은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무시한 채 9기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출두요구서를 발부하는가 하면, 소위 '탈퇴시한'이라는 것을 못박아 놓고 '탈퇴하지 않을 시 수배조치 하겠다'는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

정치수배자, 양심수가 늘어나는 나라는 희망이 없는 법이다. 더구나 나라의 든든한 초석이 되어야 할 죄없는 청년학생들을 수배자, 양심수로 만드는 나라는 결코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시대, 우리는 청년학생들의 현실에 대한 진지한 모색과 실천활동 자체를 보장하는 문제가 다가올 통일시대의 운명을 가늠 짓는 문제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9기 한총련 대의원 수배조치 반대와 합법적 활동보장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제는 매해 반복되고 있는 공안당국과 청년학생들의 쫓고 쫓기는 싸움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9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해 대학생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4백여명의 대의원들을 또다시 수배의 길로 내모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이다. 한총련 이적규정은 그 법적 근거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한총련은 지난 4월 초 대의원대회를 통해 통일강령을 '연방제 통일방안'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 남북공동선'으로 수정했으며, 지난 6월 15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민족통일대토론회에는 5명의 대표를 합법적으로 방북시키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건국대 총학생회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 포기와 경기대 총학생회장에 대한 보석신청을 허가함으로써 한총련에 이적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근거없고 무리한 법 적용인지를 스스로 시인했다.

우리는 정치수배자의 90% 이상이 '이적규정' 의한 조항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다. 한총련 이적규정의 부당성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9기 한총련 대의원들을 수배조치하는 것은 수많은 정치수배자를 양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청년학생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수 차례 경고해왔다. 공안당국은 9기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수배방침을 철회하고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당국이 진정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한다면 통일에 기여해온 이 땅 대학생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부터 그 실천적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01년 8월 3일

한총련,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민중연대(준), 통일연대, 민가협, 전대협동우회

참가 국회의원 : 이창복 의원, 이재정 의원, 송영길 의원, 임종석 의원(이상 민주당) 김홍신 의원(이상 한나라당)

"한총련은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7월 28일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문화제가 열린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최승환(부산대 금속공학과 97학번)님을 만났다.

그는 1999년 자기 대학 동아리연합회장이 한총련대의원이라는 이유로 구속된 것에 부산대 관할서인 금정경찰서로 항의방문갔다가 구속되어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이며, 작년 공대학생회장으로 이미 한총련 대의원으로 수배생활을 2년째하고 있었다. 한총련의장 중에서 제일 착하게 생겼다(?)는 느낌을 주는 최승환님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는 한총련 탄압과 그 극복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수배생활이 많이 힘들죠?

"배생활이 2년째이라, 솔직히 힘들 것 ...습니다. 굳이 힘든 것이 있다면, 활동의 부자유입니다. 한총련의장으로 전국 대학을 돌아다니며 간부들과 학우들을 만나야 하는데, 수배로 인해 지방 한 학교에 다녀오는데만 일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교통이 발달된 지금, 하루에 몇 학교씩 다녀도 충분한데, 수배로 그러지 못해 아쉽습니다"

최근 검찰의 '한총련대의원출두요구서'에 대해 출두대상인 한총련 대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검찰, 경찰에 항의방문을 하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총련이라는 대중조직의 정당성과 그 동안 한총련이 벌려온 투쟁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충분한 공유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특히, 6·15 공동선언이후 민족을 적으로 삼는 국가보안법철폐와 그동안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헌신해온 민간통일운동보장의 당위성이 널리 인정된 상황에서 왜 대학생들의 대중조직인 한총련만 탄압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공분이 전사회적으로 여론화되고,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총련은 6·15공동선언의 한 주체인 남쪽 정부가 왜 6·15공동선언이행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으로 대학생들을 탄압하는가에 대해 마땅히 항의해야 합니다. 6·15 남

북정상회담이후 한총련 대의원을 잘 잡아가지도 못하고, 잡아가도 형량이 낮게 나오는 모순된 상황에서 한총련은 수세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당당히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한총련 탄압의 주된 요인이 되는 이적규정문제에 대한 입장은?

총련 대의원에 대해 구형을 하는 조항은 찬양, 고무도 아닌, 이적단체규정입니다. 따라서 총련은 한총련 이적규정철회를 학우들의 힘을 모아 이룰 것입니다. 단과대 학생회장인 대의원수배상황에 대해 널리 낱낱이 알려내고, 지금의 세상에서 한총련 이적규정이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를 알려내어 한총련 탄압에 대한 대중적 공분을 모아 한총련 이적규정철회를 이룰 것입니다.

나아가, 이를 주요한 사회문제로 만들어 대중여론의 공감을 모아내고, 위로는 양심적인 국회의원 등 정치권, 아래로는 국가보안법철폐국민연대, 한총련학부모님들 등 각 사회단체 및 대중들과 연대하여 한총련 이적규정철회의 힘을 만들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별이나 사안별로 흩어진 힘들을 모으고, 집중된 힘으로 경찰,검찰 등 공안당국을 압박하고 법적 투쟁까지도 당당히 벌려낼 것입니다.

6 · 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청년 · 학생운동본부와 함께 하는 한총련 이적규정철회기자회견, 9월 정기국회 압력투쟁, 헌법소원 제출 등이 구체적 실천이 될 것입니다. 한총련 이적규정철회는 하반기 한총련의 주요한 투쟁이 될 것입니다

한총련이 힘을 내기위해서는 자체적인 조직강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한총련이 흔들림없는 투쟁을 벌려온 것은 높이 사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총련이 그간 투쟁을 학우속에서 얼마나 함께 하려 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우들은 '한총련이 정치일변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총련은 우리는 정치일변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우들의 목소리에 담긴 내용을 잘 파악하여 등록금문제 등 대중적 관심사안에 한총련이 더욱 함께 하기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속에서 정치적 사안 또한 대중적으로 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정서에 맞게 투쟁을 전개하여 그들의 공분을 참여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한총련은 7천만 겨레의 희망인 6 · 15공동선언이행을 그렇게 전개할 것이며, 민중생존권문제 해결에도 충분히 힘을 기울 것입니다

끝으로, 한총련 의장으로써 작게는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원들, 크게는 국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사회의 건설, 민족의 자주와 통일실현을 위해 한총련이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지켜봐주시고, 믿음과 신뢰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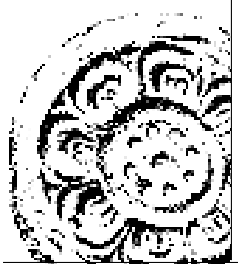
6 · 15공동선언이행을 한총련과 함께 실천합시다. 국가보안법철폐와 민중생존권쟁취에 민중의 아들, 딸 청년학생의 정의로운 대중조직이 한총련이 함께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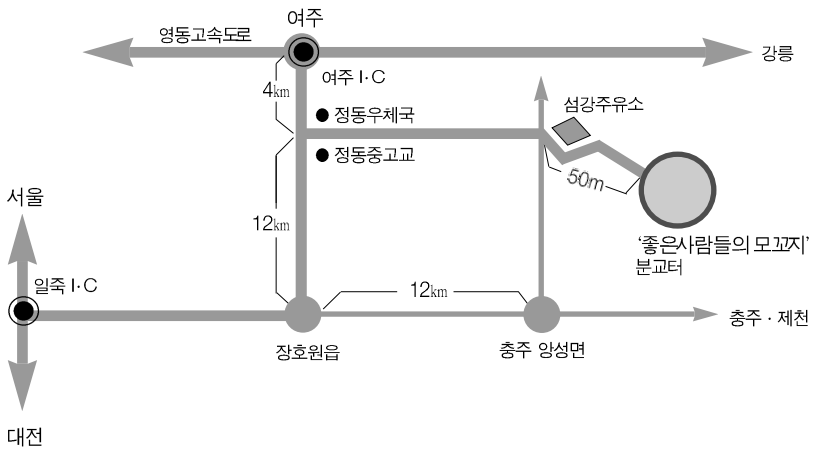
민가협 어머님들과 장기수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민가협 · 양심수후원회 여름수련회!

해마다 가는 여름 수련회가 어느덧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민가협 어머님들과 남아계신 장기수선생님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동안 못만났던 회원들도 보는 즐거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회원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01년 8월 25일~26일 1박2일
장소 : '좋은 사람들의 모꼬지' 분교터
(충북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412-1번지, **전화 :** 043-857-1985)
출발시간 : 8월 25일 오후 3시
출발장소 :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서초구민회관 앞
준 비 물 : 회비 3만원과 간단한 여행차림.
참가하실 분은 765-5282(사무실)나 888-4470(모임방), 또는 019-205-7937(수습간사)로 미리 연락주세요! 차편을 마련해야 합니다.





알립니다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여러 회원 분들과 함께 이번 8월에 1000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회원카드' 작성작업을 합니다.
  회원의 근황이나 주소 등이 맞지 않는 것이 적지않아 이를 보완하고, 앞으로 회원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테스트를 합니다. 아직 관리주체가 세워지지 않아 자료준비나 홈페이지 운영에 미흡함이 많습니다.
  관심있는 회원들의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게시판에 고견을 올려주세요!
  (연락 : 이창희 019-205-7937)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1년 7월

01 고 김경옥님(김태룡 선생님 모친) 빈소문상, 영결식에 함께 함. 중앙병원 장례예식장에서 발인, 용미리 시립묘지에 안장되심

경주경찰서는 경주 민주노총 정책실장 오세용(39)씨 등 노동자 18명을 연행, 이 가운데 4~5명에 구속영장 신청하기로 함. 경주지역 노동자 1000여명은 대우기공 정문앞에서 위장폐업철회와 구사대폭력을 방조한 경찰관계자 문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음

02 장기구금양심수 강제전향공작 등을 다루는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취재팀, 낙성대 만남의 집에 와서 김영식, 문상봉 선생님 취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80년 '부림사건' 등 국가보안법관련자 8명에 대해 처음으로 민주화 기여를 인정, 명예회복 문제를 본 회의에 올렸다고 2일 밝힘.

03 낙성대 만남의 집 문상봉, 김영식선생님 주민등록을 옮긴 일과 관련, 동사무소에 가서 생활보호대상자, 전화가설문제, 거택보호자문제 등 사회복지계원과 동장 만나 일괄정리하다.

04 탑골공원 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7.4남북공동성명 29돌 기념식 및 제2차 정상회담, 6.15공동선언실현과 미국 내정간섭, MD반대 문화한마당 열림. 기념사 오종렬, 정치연설 권오헌, 홍근수 등이 함.

기독교회관 2층강당에서 통일맞이 제6회 늦봄통일상 시상 및 정경모선생 귀국 환영모임.수상자 정경모선생님 입국불허로 참석못함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91년 산화해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설 열사 등 158명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

용산 미8군 정문앞에서 '불평등한 소파개정국민운동' 연대단체 회원들이 "한반도 평화실현과 주한미군철수 촉구대회"를 열다.

05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작팀들과 인천 나사렛한방병원으로 정순덕 선생님 찾아뵘. 선생님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표정이셨고, 최근엔 잠깐이라도 왼발로 몸무게를 버틸 수 있었다고 하심.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정해창 부장판사) 심리로 이른바 '단국대활동가조직사건' 첫 공판을 열고 인적상황만 확인하고 다음 특별기일(7.18)에 417호 대법정에서 개정하기로 함.

민가협 384회 목요집회, 여는 말: 임기란 상임의장, 서울민주노동자회 회원 9명구속사례: 구속자 문종찬씨 부인 송경화씨, 병원치료를 받던 중 구속된 딸 곽은주(서울민주노동자회 회원)에게 보내는 어머님의 편지낭독, 단국대 소위 활동가조직사건 관련자에 대한무리한 구속, 기소: 단국대 소위 활동가조직사건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 홍사엽 등 발언함.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중심 구조조정반대', '비정규노동자 노동시간단축' 등 노동법안 국회통과를 요구하며 80여 사업장에서 7만여 노조원이 하루 총파업을 벌임, 또한 1만여조합원은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명동성당까지 거리시위벌임.

06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시지부장 김이무개교사 등 2명을 집회시간을 넘겼다라며 집시법 위반협의로 구속.

07 국가보안법폐지와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토요캠페인을 갖다. 단국대 활동가조직사건대책위, 서민노회사건 등 사례발표,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 촉구연설(권오헌) 등으로 진행함.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 격려방문.

08 대전시 동구 남월동 골령골에서 1950년 7월 대전형무소에 수감돼있다 집단학살된 제주 4.3항쟁관련자들의 넋을 기리는 '대전 산내학살 희생자위령제'가 '대전 산내 양민학살희생자 위령제 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림.

09 전교조, 정신대문제 대책위 등 8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일본교과서 바로잡기운동본부'는 탑골공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역사교과서 재수정을 거부한 일본정부에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대사관 앞으로 항의거리행진을 하려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몸싸움을 하다.

서울 인사동 들머리에서 환경운동단체와 종교단체 회원들이 새만금살리기 1000만서명운동 발대식을 갖다.

서울지검 공안2부(박철준 부장)는 경남 창원에서의 공무원집회를 주도한 협의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 차봉천위원장 등을 국가공무원법과 직장협의회법 등 위반협의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검거에 나섬.

10 전교조, 한단협 등 5~9개 단체로 구성된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는 안국동 철학까페 '느티나무'에서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 선언 및 방상훈사장 자진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가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는 민주화운동관련으로 인정된 사망과 실종자

유족에게 1억원의 보상금,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사람에게는 최고9천만원, 구금자에게는 최고 7천만원, 해직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케하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확정해 발표.

11

- 전국연합, 민주노총 등 273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명동 카톨릭회관 7층강당에서 '개혁실종 민생파탄 민주역행의 현 상황을 우려하는 민주·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을 발표. 시국선언은 노동운동탄압중지, 생존권 투쟁에 대한 폭력적 탄압중지, 국가보안법폐지, 집시법개정, 사립학교법개정, 탈세언론사 및 비리 언론사주 엄정처리 등을 촉구
- 명동성당농성단과 1년 2개월의 농성을 돌아보며 앞으로 투쟁진로문제 등 논의, 광주·전남지역 양심수후원회 이윤정 공동대표 함께 함.

12

- 명동 '한·하늘·땅'에서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위원회 대표자 회의8월초는 송환추진을 위한 토론회. 9월2일 송환1주년 기념문화제를 열 것을 결의.
- 민가협 385회 목요집회, 여는말: 임기란 상임의장,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유린 현실을 아시나요' 셩 그리셔(네팔),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않는 불법행위를 중단하라' 서울경인 평등노조 이윤주 지부장, '6.15공동선언 역행하는 범청학련 대변인 황선씨 구속사례' 서경순 전 상임의장, 아우성 노래공연 '내일이 오면' 등으로 진행함.
- 인사동에 사무실을 두고있던 통일광장이 서울 용산구 동자동 3-19, 779-5137로 지난 6월 이사를 하고 통일광장, 청년통일광장, 반미여성회, 금강초롱 등과 함께 집들이가 있었음. 통일광장사무실은 개인단독주택을 임대한 쾌적한 주변환경에 자리잡고 있으며 신인영선생님 어머님이신 고봉희 할머님도 이곳으로 오시어 계십니다. 집들이에는 통일관장선생님들과 범민련 남측본부, 전국연합, 민가협, 유가협 등 사회단체에서 함께 하며 축하하였으며 양심수후원회에서도 이정규, 송창학, 곽인석, 이승미, 변의숙, 김호, 이창희, 양계숙 회원들이 함께하였습니다.
-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4·13총선때 낙선운동과 관련 불구속기소된 총선연대 지은희, 최열 공동대표와 박원순 전상임집행위원장 등에 활동의 공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에는 위반된다며 500만원씩 벌금형 선고.

13

- 홍성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던 97년 조선대총학생회장이며 남총련 의장이었던 정의찬 학생이 5년형 만기를 살고 13일 0시 출소하여 마중다녀 왔습니다. 조선대학생들과 광주·전남지역양심수후원회원들이 부모님과 함께 마중나왔고, 홍성에서는 홍성청소년신문 발행인 이번영선생님과 YMCA 정형영총무님, 전교조 진기성 홍성지회장님 외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 민가협운영위원회, 민가협 여름수련회 등 논의, 8월 25~26일로 날짜결정.
- 범청학련남측본부 황선 대변인 연행과 관련장안동 서울경철청 대공분실 앞에서 덕성여대 학생들 항의집회. 민가협어머님들과 함께 참석, 이어 중랑경찰서로 황선학생 면화임기란, 서경순, 조순덕, 권오헌 등이 함께함.
- 소식지 발송작업, 김호, 변의숙, 한수정, 김재명 등이 함께함.

14

- 소식지 국내1,036통, 국제15통 발송.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주최로 서울역광장에서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의날' 집회열다. 이어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주최로 '민주노총 탄압 규탄 및 공기업, 국가기간산업 해외매각 저지 결의대회' 열다. 결의대회 마치고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

-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국가보안법폐지와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토요집회 갖다.
- 통일역사기행모임 (대표 한찬욱)은 통일운동단체순회방문계획에 따라 양심수후원회 방문.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박용길장로님과 권오헌후원회장으로부터 양심수후원회와 양심수가족운동 이야기 듣다.이 자리에는 박종린, 문상봉, 김영식선생님이 함께하셨고 통일역사기행회원 명과 양심수후원회원 30여명이 함께함.

15

- 우리탕제원을 함께하시는 양희철선생님 형님이신 양상철님께서 중풍으로 투병해 오시다가 15일 8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인은 17일 영결식을 갖고 전북 장수군 선산에 모셨다고 합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 동대문경찰서는 서울대병원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 최선임 노조지부장을 구속.
- 양심수후원회 회원기획모임이 이득행, 양계숙회원집에서 있었습니다. 두 분의 신혼보금자리이기도한 미아동

집에 정식집들이는 아니지만 온 사람들에게 몸보신까지
16 하게 했다고 칭찬이 자자했음.

- 양심수후원회 13차년도 3차운영위원회가 '만남의 집'에서 열림. 사업 · 재정보고와 비전향장기수 송환운동과 2001년 회원여름수련모임등 협의
- 서울행정법원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이른바 남매간첩단사건으로 복역했던 김아무개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 관련자료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보안관찰 · 예산등 일부정보공개하라'고 원고일부승소
17 판결.
- 이상수 민주당원내총무는 '현재 분위기로는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열려도 국가보안법 개정은 논의조차 힘들
18 것'이라함.
- 박정희기념관반대 1인시위 100번째로 민가협 임기란 상임의장님이 시청정문에서 시위를 하며 박정희정권의 탄압아래 고통받아온 일을 잊지 못한다며 국고를 들여 박정희기념관을 짓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독재기념관 건립을 단호히 반대.
-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은 금강산 온정리 김정숙휴양소 운동장에서 '6 · 15 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남북(북남)농민 통일대회'를 열고 축하공연, 민속놀
19 이, 체육경기 등을 하며 자주와 단결로 통일할 것을 다짐.
- 가독교회관 대강당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최로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촉구대회'를 마치고 임기란 상임의장 등 대표단은 민주당에 양심수사면촉구선언 전달.
- 민가협 386회 목요집회,서경순 전상임의장 여는말, 진관스님, 서민노회 곽은주어머니 편지낭독, 정대연씨, 박경순씨 석방촉구연설.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중재판관) 민주당 조순형의원과 민주노동당이 현행선거법이 헌법상 민주주의와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외사건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조항(189조 1-7항)은 헌법상의 직접 · 평등 선거권을 침해하고 국회의원 입후보때 2천만원을 가탁하도록 돼 있는 조항도(제56조) 위헌이라고 결정.
20 (1인1표 비례제표제위헌)
-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한총련합법화, 9기 대의원 수배조치철회'를 위한 한총련 전체대의원 경찰청장공개 면담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한총련 주최로 이종린, 오종렬, 임기란, 권오헌, 김규철, 정연오 사회단체대표들 배석하여 진행, 기자회견 마치고 한총련 대의원등 300여명 경찰청항의시위(서대문지하철역). 경찰청장면담대표단, 이종린, 오종렬, 임기란, 권오헌, 한총련대의원3명 등 경찰청보안2과장 등 면담. 9기 한총련대의원들에 출두요구서보낸데 강력항의와 한총련 탄압 즉각 중단 촉구.
- 명동성당종성현장에서 국가보안법관련정치수배 농성단 진재영, 유영업, 이동진 학생과 대책위와 시민단체대표 연석간담회를 갖고 이제까지 농성투쟁을 평가하고 앞으로 투쟁방향등 논의. 이종린, 김규철, 김영옥, 박정숙, 김선분, 박정기, 진관, 임기란, 최원석어머니, 박선영열사어머님, 이윤정(광주 양심수후원회대표), 권오헌 등 함께 함.
- 서울지법민사합의4부(재판장 조수헌 부장판사)는 94년 '구국전위' 사건 때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판결된 이광철씨 등 가족이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없이 피의사실을 공표, 명예를 훼손당하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이씨가족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
21 을 내림.
- 옴시롱 · 감시롱 제30화 기행 '개펄에 이르러 검은 진흙에 몸을 문지르며…'란 주제로 새만금 간척사업 예정지를 찾는 환경기행을 21~22 이틀간 다녀왔답니다.옴시롱 회원이기도 한 우리탕제원의 안학섭선생님 내외분과 노혁 으뜸일꾼등 26명이 함께 했는데 21일 예정이었던 국가보안법폐지 문화제등이 마침 큰 비로 인해 취소되는 바람에 이창희 후원회간사가 함께 했고, 밤 10시 차로 떠나려던 권오헌님도 양재 서초구민회관 앞에서 함께 떠났음. 전주 IC에서 합류한 전북청년운동연합 전북지역 정책실 주용기실장의 안내로 만경강 둑을 끼고 가며 김제 · 만경 평야의 광활함을 직접보고 노을진 만경강하구 바다내음과 강바람을 온몸으로 느낌. 심포항 숙소에 짐을 풀고 모기와 싸우는 저녁식사후 주용기실장의 슬라이드 화면을 통한 개펄과 환경문제 새만금사업의 문제점 등 강의를 듣고 뒤풀이. 22일 아침, 일어나 왕복 40분거리 망해사 답사와 끝없이 펼쳐진 개펄 구경. 아침식사 후 거진갯펄에 들어가 1시간 20분에 걸쳐 바다개펄

2001년 7월

3km까지 나가며 바다생물들을 관찰. 오후에는 우리나라 최고·최대의 저수지둑으로 백제 비류왕 27년에 (서기 330년)에 완공하고 신라 원성왕때 중축했다는 '벽골제' 사적지를 둘러보고, 이어 부안 애창개펄을 답사하고 돌아왔습니다.

22

- 민주노총은 서울종묘공원에서 소속노조와 2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민주노총 탄압중단촉구 노동자대회'를 열고 단병호위원장 검거령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5일 근무제도입, 공무원노조 인정, 민영화 구조조정 중단 등 촉구. 집회를 마친 노조원들은 시청앞 광장에 진출, 노조탄압규탄집회를 가짐

23

-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 중요단체 대표자회의를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사무실에서 갖고 비전향장기수송환을 통한 민족의 화해와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토론형식 토론참가자 선정을 협의하고 8월 9일 성공회성당 프린시스홀로 결정. 통일연대 주최, 송추위 주관, 말, 한겨레, 민족21 등 후원교섭하기로 함.
-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권오헌, 노진민)는 통일부 인도지원국 방문.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의 8월9일 토론회에 통일부에서 토론자 참여할 것을 요청. 이산가족 1과 한기수서기관 검토후 통보하겠다고 함.

24

-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권오헌, 노진민), 대한적십자사 방문. 이병웅 총재특보 만나 8월9일 토론회에 적십자사에서 토론자 보내줄 것 요청. 적십자사는 인도주의 사업에 찬성하지만 직접 토론자로 나서는 것은 어렵고 참관만 하겠다고 함.

25

- 'MD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일 예정된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 방한 반대와 MD반대를 선언.
- 서울 용산미군기지 정문에서 '우리땅 용산 미군기지 되찾기 수요집회'를 열고 용산미군기지 기름오염을 규탄하고 미군기지의 즉각 반환을 촉구.

26

- 민가협 8·15 특별사면촉구대표단은 민주당 김중권대표 면담. 국가보안법폐지와 51명의 양심수 전원석방, 148명의 정치수배해제 한총련, 범민련 이적규정철회, 단병호위원장 등 체포영장 철회와 구속노동자석방 등을 강력히 요청. 김대표, 여러분 뜻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했고, 이종걸 인권위원장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 등 8·15사면건의안 내겠다고 말함.
- 민가협 387회 목요집회, 여는말 임기란 상임의장, 최윤영(초등학교 3학년, 서민노회 사건 최석기씨 딸)이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낭독, 임태열씨가 지원(5살)에게 보내는 편지낭독, 김일지(초등학교 3학년, 민혁당 사건 김경환씨 아들)가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낭독, "애들아, 나와 함께 감옥 문을 열자꾸나" 산신령 퍼포먼스, 양심수 자

녀들의 합장 "바위처럼" 등으로 진행.

- 구로공단에서 서민노회 구속자 석방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주점이 서민노회 사건 대책위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송창학회원과 함께하며 격려하다.
- 우리당제원을 함께 하시는 양희철선생님께서는 관악구 봉전11동 은천아파트 102동 1004호로 이사를 하셨고 선생님들과 민가협 어머님들축하속에서 집들이를 하였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정규, 이정태, 송창학, 김호, 이창희 권오헌 함께축하해 드림.

27

- 41개의 개인단체가 함께 하는 'MD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를 미국무장관 콜린 파월이 도착하는 서울공항 앞에서 파월 방한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음. 이어 기독교청년회관 앞에서 '파월방한반대' 'MD반대' 등 피켓시위 벌임.

28

- 97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이며 한총련5기 의장이었던 강위원 학생이 경주교도소에서 5년형 만기출소함.(2000. 8.15 1년 감형) 경주교소소엔 27일 밤부터 광주, 대구, 서울 수원 등에서 마중나온 민가협회와 청년학생 서울, 대구, 광주 양심수후원회원, 전남대 29대 동기들, 동국대 경주캠퍼스학생 범민련, 전국연합, 사회단체 대표들 300여명이 모여 대경지역 양심수후원회 곽은경간사 사회간사로 환영식 사전집회 열음. 전국연합(오종렬), 범민련(문재룡), 민가협(최원석 어머님) 9기 한총련 최승환의장 인사말(동국대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장 대독) 등이 있었고, 문화공연진행. 이어 강위원 학생 정문으로 출소, 출소인사말을 듣고 장소를 동국대 경주캠

퍼스로 옮겨강위원 후원회 주최로 환영식 가짐, 환영말은 권오헌(양심수후원회장) 정연오 (한총련학부모협의회)한기명(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 의장 환영사대독) 선생순으로 진행. 강위원 학생의 답사와 가족들 인사(큰형님)가 있었음. 미리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환영분위기를 북돋았음.

- 대구교도도에 수감중인 심재춘(민혁당 사건), 정명기 (4기 한총련의장)를 민가협 어머님들과 함께 면회했음. 두 사람 모두 건강해 보였으나 며칠 후 정명기 학생이 출소하게 되면 심재춘씨 혼자 남게 되어 안타깝게 했음. 그래서 8·15 양심수전원석방을 반드시 이루어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음.
- 담도암 말기로 어려운 투병을 해오시던 6기 한총련의장 손준혁 98년 영남대 총학생회장 아버님 손영상님께서 25일 9시35분 영남대 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손준혁 학생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하여 27일 장례를 모시게 되었고 화장을 하여 밀양선영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장례를 모시고 집에 와 있던 손준혁 학생 집을 찾아가 고인의 영전에 명복을 빌고 상주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민가협 어머님들과 함께 손준혁상주와 어머님을 모시고 나와 점심식사를 함께 하고 내일다시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야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며 떠났습니다.
- 6·25 전쟁때 유격대 활동하다 전쟁포로로 잡히어 16년 옥고를 치르고 나오신 비전향으로 나오신 김태수 선생님을 찾아 뵙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2차 비전향장기수 송환신청을 해둔바 있습니다 (이창희, 권오헌).
- 국가보안법 관련 정치수배해제농성단 양심수후원회와 함께 하는 토요집회를 갖다

29

- 범민련후원회와 함께 한 양심수후원회 7월 산행은 새벽부터 억수로 퍼붓고 있었지만 양심수후원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포기한 예가 없었기에 도봉산 입구에서 모이게 됨. 비가 오고 있었지만 모두 19명이 함께 하여 계곡이 아닌 청룡사터로 가는 능선길 넓은 바위 있는 곳에서 점심식사, 소개시간, 2001년 통일축전관련소식 등을 마쳤을 때 큰 비가 쏟아져 산을 내려옴. 도봉산 입구 음식점에서 멋진 뒤풀이로 산행 마침. 범민련 후원회에서는 강병식 사무국장이 함께 했고 범민련 후원회원으로 겹쳐진 분도 있겠지만, 유기진, 송세영, 김수룡, 소기수, 류정식, 류종인, 김교영, 안신옥, 한수정, 이정태, 김재성, 김재선, 김광철, 신현익, 이득행, 송창학, 이창희, 권오헌 등이 함께 함.
- 대전지법과 천안지원은 순천향대학교 총학생회장 곽상욱 학생과 충남대 경상대학 학생회장 박병철 학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뒤 국가보안법 위반협의로 구속.

30

-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정해창 부장판사) 심리로 이른바 단국대활동가조직사건 증인심문 벌임. 같은 사건으로 군기무사에 구속되어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단국대생 김명섭씨 증언, "함께 모임을 가졌지만, 이적성있는 학습이나 단체구성을 위한 모임이 아니었고, 학생회간부들로서의 일상적 활동이었다"고 검찰 심문이 요구하는 내용과 반대로 답변, 공판이 끝나고 법원구내에서 정리집회.
- 민주당 이종걸 인권위원장은 공식 브리핑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협의 48명, 집시법 등 110명을 비롯한 양심수 158명과 선거사범 등 448명에 대한 사면·복권과 한총련 지도부 등 학생운동관련 수배자 148명의 수배해제 등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청와대 신광옥 민정수석은 "법무부 건의에 따라 올해 광복절 특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고 발표.

31

- 김경환·심재춘 석방대책위 주선으로 청와대에서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면담하다. 시정비서관을 입회시킨 자리에서 김경환·심재춘 석방을 촉구하는 대책위 요구사항과 라창순, 박경순씨 등 노약자, 병약자 석방을 비롯한 179명 양심수전원석방, 진재영 씨 등 정치수배로 쫓기고 있는 한총련 대의원 등 148명 수배해제조치, 구속노동자석방과 수배노조간부 해제조치 등 8.15 양심수 특사, 한총련·범민련 이적규정철회 등 촉구, 사정비서관과 한광옥 비서실장은 현재 광복절 특사 계획없으나, 여러분 의견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함. 임기란, 정범구 의원, 최용철, 오창익, 김진주, 심재춘 어머님, 김경환씨 부인, 권오헌 등 함께 함.
- 이문학회 이구영 선생님께서 고혈압과 심장, 신장 등 질환과 부종증상으로 7월27일 시립서대문병원 1107호에 입원하여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입원5일째인 현재 붓기 등 많이 좋아지셨고, 앞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더하며 치료를 받으시게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빠른 쾌유가 있기 빕니다. 변의숙 회원과 함께 함.
- 일제시대부터 항일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을 했고, 48년 남쪽단독선거반대운동을 하다가 투옥돼 모두 30년 옥고를 치르고 82년 출소하신 김시중선생님께서 30일 노환으로 타계하여 문상다녀왔습니다. 저서로 '역사는 승자의 기록만 남는가(학민사)' 등이 있고, 발인은 8월 1일 목동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룰 예정이고 용미리 시립묘지에 모신다고 합니다. 삼가명복을 빕니다.
- 영치금 166통 보냄.
- 출소장기수선생님과 양심수가족 지원금 보냄.
- 말지 4권 발송.